

우리나라 인삼약초산업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 유통국장

I. 인삼산업 현황과 문제점

1. 고려인삼에 관한 일반사항

□ 한반도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 효능이 최고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중의 하나

- 농림부 : 인삼산업법 등을 통한 인삼산업 종합발전 지원
- 문화부 : 한국문화상징 BEST 10중의 하나로 선정
- 산업자원부 : 세계일류상품 55개중의 하나로 선정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일등상품 10개중의 하나로 선정
 - * 고려인삼은 아시아 극동지방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로서 북위 34~48° 사이에서 생산(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생산)

□ 고려인삼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고려인삼 SWOT 분석〉

장점

- 천년전통의 최고 품질
- 해외에서 고려인삼의 명성
- 내수시장의 규모가 큼
- 인삼산업발전에 대한 정부지원

약점

- 고비용노동력, 낮은 단위생산성
- 업체의 영세성
- 전근대적 유통구조

기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증대
- 기존 해외시장의 확대

위협

- 중국, 미국산 인삼 도전
- 각국의 법률적 규제
 - 잔류농약문제
- DDA, FTA로 인한 시장개방확대
-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강화
 - 인삼은 우리나라 전통특산물로서 '96년까지 국가가 직접관리
 - UR계기로 인삼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삼산업법 제정
 - 1996.7.1, 홍삼전매체 폐지로 민간자율산업으로 전환
 - '04년 인삼계열화사업 시작
 - '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지원

2. 생산측면

□ 홍삼전매체 폐지(96)이후 인삼재배면적·생산량은 증가추세, 농가수는 감소

기획특집 4

〈인삼재배면적·생산량〉

구분	'96	'00	'04
· 재배면적(ha)	8,940	12,445	'04
· 생산량(톤)	10,147	13,664	'04
· 생산액(억원)	2,543	3,728	'04
· 농가수(호)	23,304	23,011	'04

* 인삼생산액은 농업총생산의 1.7%, 단일 품목으로는 11위 (쌀 총생산액8조 8천억원의 6.6%수준)

□ '04년 기준 지역별로는 전북(2,813ha), 경기(2,783), 충북(2,583), 충남(2,442), 강원(1,097), 경북(800), 전남(443)순이며 전국적 재배면적 확대

〈인삼재배 증가율 상위 시·도별 내역〉

지역별	'96	'04	증감(비율)
계	8,941	13,081	4,140(46%)
·	·	·	·
전 남	142	443	301(212)
강 원	454	1,097	643(142)
경 기	1,803	2,783	980(54)
·	·	·	·

□ 10a당인삼소득(1,715천원)은 쌀소득의 3배정도로 높은 편임

3.유통·소비측면

- 인삼의 유통구조는 원료삼별로 구분되어 유통
 - 수삼은 계약재배,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유통 -대부분 금산(70%), 경동(10%) 시장에서 판매
- 수삼은 금산시장을 경유하여 유통, 유통구조 매우 낙후
 - 유통구조가 6~8단계로 유통비용은 높고, 투명성은 낮음

- 농약안정성 관리 미흡, 미검사품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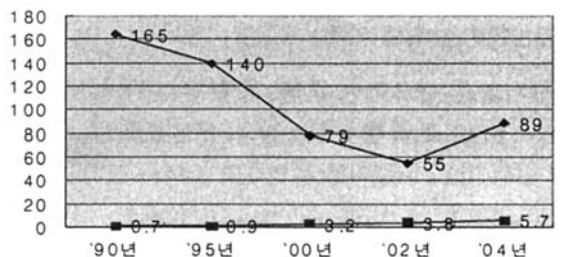
- 12개 인삼조합의 생산·유통기능 미약(8.0%)
- 인삼조합별 브랜드 추진 등으로 기능과 역할 미흡
- 인삼소비는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 순임
- 수삼은 삼계탕 재료, 백삼은 한약재·보약, 홍삼 보조식품으로 사용
- 소비비율 : 수삼 50%, 백삼 33%, 홍삼 15%, 태극삼 2%

□ '96년 이후 인삼 가공산업 증가로 가공제품 소비 확대

- 인삼류 제조업체는 529개소에 달하나 한국인삼공사 등 10여개업체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영세 (평균자본금 328백만원)
- 인삼제품류 제조업체는 556개('03), 제조품목수는 850개
- 인삼제품류 매출액 : ('98) 1,500억원 → ('03) 3,400 - 홍삼엑기스, 홍삼 드링크, 홍삼차, 홍삼 캡슐 등임

4.수출 및 수입측면

□ 인삼 수·출입 실적 추이



□ 고려인삼 수출은 '90년 1억6천5백만불에서 '02년 5천5백만불로 감소했으나 '0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 (90) 165백만불 → (02)66 → 67 (04)89
- 수출감소 사유
 - 미국, 중국삼의 저가 공세, 고려인삼의 승열작용 오인식
 - 유통마진이 적은 고려인삼에 대한 해외 도·소매상의 기피현상
 - 해외삼의 고려인삼으로 위조 판매, 중국, 미국삼의 품질 경쟁력 향상 등

□ 최근 고려인삼 승열작용 오인식 해소 및 해외마케팅 강화로 수출증가

□ 6년근 홍삼의 중국 의약품 품질기준 설정으로 대중국 공식수출 가능

- 중국수출을 위해 가공식품은 보건식품 등록, 뿌리삼은 의약품 등록 필요
 - 뿌리삼 의약품 등록시 킬터량에 제한없이 3년간 수출가능
 - 현재 임시수입허가증은 킬터량을 배정하여 3개월단위 수출
 - ★ 가공식품은 보건식품등록시 기간·수량 제한없이 수출가능

□ 수출인삼의 유형 : 홍삼, 백삼, 정과류, 분말류, 조제품, 음료, 액즙 등

- 원형삼 등 홍삼이, 원형삼보다는 가공제품 수출 증가추세
 - 홍삼, 가공제품(인삼음료, 홍삼·백삼조제품) 수출이 80% 차지
 - 가공제품 수출비중 : (99) 44.3% → (01)51.1 → (04)62.8

□ 인삼 수입이 점차 증가추세이며, 인삼 가공제품이 주로 수입됨

- 수입량: ('01)133톤 → ('02)140 → ('03)206 → (04)56.8
 - 농협중앙회에서 실수요자에게 수입권 공매, 주로 가공제품 원료로 사용
 - 관세 : 홍삼 754%(SSG 251.4%), 수삼 222.8%(SSG 74.3%)

□ 보따리상 휴대 인삼, 밀수인삼 국내유통이 문제되고 있음

- 밀수인삼 단속실적 : ('01)44건/4억원 → (03)101/75 → (04) 106/28

II. 한국인삼의 국제경쟁력

1. 세계인삼 생산동향

□ 한국과 중국의 인삼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 차지

구분	중국	미국	캐나다	한국	계
1987	13,396 (43.7%)	2,356 (7.7%)	456 (1.5%)	14,424 (47.1%)	30,632 (100%)
1997	19,000 (49.7%)	4,000 (10.6%)	2,950 (7.8%)	12,259 (32.1%)	32,209 (100%)
2001	20,000 (53.0%)	2,052 (5.4%)	2,483 (6.6%)	13,215 (35.0%)	37,750 (100%)
증감율	49.3	12.9	444.5	△8.4	23.2

* 중국과 캐나다의 인삼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최근들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도 인삼생산

-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종자를 가져다가 대규모 재배시작
- 독일은 유럽 최초로 인삼재배에 성공하였고 재배농가 확대와 인삼재배업자 협회 결성
- 프랑스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인삼을 육성하고

기획특집 4

- 있으며, '94년 부터 인삼 재배시작
- 주요 대학 및 프랑스 국립과학센터(CNRS)의 노인성치매 예방 연구, 항암, 특수질병 및 치유에 대한 인삼의 효과 연구
 - 벨기에에는 캐나다 인삼회사 "진생 엔터프라이즈"와 합작 생산하고 유럽연합 지원아래 인삼재배 본격화

2. 고려인삼의 국제경쟁력

- 생산경쟁력
 - 한국은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기계화율이 낮아 생산비가 높음
 - 미국·캐나다는 파종·수확을 기계화,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

〈주요국과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캐나다	미국
호당면적(ha)	0.95	3~5	4~6	5~10
생산비(원/kg)	21,317	3,590	8,604	6,444
단 수(kg/10a)	504	553	850	800

□ 가격 경쟁력

- 홍콩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삼을 기준으로 한국산은 중국산 12배, 미국산 5배, 캐나다산 7배로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음

〈주요국과 가격비교〉

구분	한국	캐나다	미국	중국
홍삼 6년근(\$/kg)	155.1	20.1	31.5	13.0

□ 품질 경쟁력

- 고려인삼은 외국삼에 비해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많은 종류 (2~4배)의 ginsenoside(인삼 사포닌)

를 함유하고 있음

- 고려인삼 약효가 강하고 효능도 외국삼에 비해 우수하다고 인정

구분	고려인삼	서양삼	삼칠삼	죽절삼
원산지	한국,만주	북미동부	중국운남	일본
Ginsenoside함양	3~4%	4~5%	4~5%	
Ginsenoside종류	34종	14종	15종	8종

III. 인삼산업 발전 중장기 추진계획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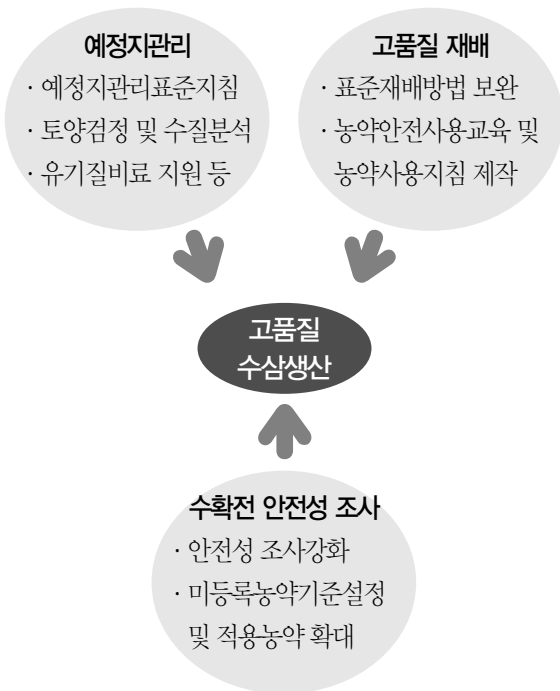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인삼생산·유통으로
인삼중주국 위상확보



과제 선정 및 실천

- ◇ 제1과제 : 단계별 고품질 원료삼 생산체계 확립
- ◇ 제2과제 : GAP 및 생산이력제 추진
- ◇ 제3과제 : 인삼 생산-가공-유통계열화 사업추진
- ◇ 제4과제 : 인삼전업능 육성
- ◇ 제5과제 : 외국삼 부정유통근절
- ◇ 제6과제 : 인삼류 검사강화 및 미검사품 유통방지
- ◇ 제7과제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추진
- ◇ 제8과제 : 연구개발 체계정립 및 기능강화
- ◇ 제9과제 : 차별화된 시장별 수출전략 추진

과제1. 단계별 고품질 원료삼 생산체계 확립



(04)2,500→(05.6~7월) 3,600

- '04년에 농약안전사용지침서 제작 배포 : 15,000부
- 수확전 안전성 조사 확대 : (04)200점→(05)500점
- 부적합품은 과태료,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명령 시달
- ★ '13년까지 조사점수를 2,500점까지 확대하여 1ha당 1점조사

과제2. GAP 및 이력 추적제 추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생산·공급과정에서 농약·중금속·병원성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농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고품질의 원료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교육 및 수확전 안전성검사 실시

- 농약안전사용 교육 확대 : (03) 1,996명→(04)2,500→(05.6~7월)3,600
- '04년에 농약안전사용지침서 제작 배포 : 15,000부
- 수확전 안전성 조사 확대 : (04)200점 → (05)500점
- 부적합품은 과태료,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명령 시달
- ★ '13년까지 조사점수를 2,500점까지 확대하여 1ha당 1점조사

□ 고품질의 원료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교육 및 수확전 안전성검사 실시

- 농약안전사용교육 확대 : (03)1,996명→

□ 안전인삼생산으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GAP 도입

- '05년에 인삼 GAP 표준재배법을 마련하여 GAP 도입
- 생산이력, 포장내역, 토양, 비료사용, 관계수, 농약사용, 수확후 관리 등
- '07년에 인삼계열화 사업과 연계하여 인삼 GAP 본격 실시
- ★ 중국에서는 2002.6.1부터 인삼 GAP관리규범을 제정하고, 현재 무공해농산물인증제도로 실시

□ 이력추적제도(T racedoility)로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체계 구축마련(10까지)

- 인삼이력추적제 도입과 이력제 전산화 동시추진 (10년)

기획특집 4

- 한국인삼공사, 농협 등과 연계하여 실용화기술 개발

과제3. 인삼 생산-가공-유통계열화 사업 추진

□ 인삼의 전근대적 유통개선을 위한 계열화 사업 추진

- 고품질우량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 유통구조 축소(6~8단계→3~4단계)→유통비용 절감
- 인삼브랜드화→외국삼과의 차별화 실현→소비자 신뢰 확보

□ 정부와 농협이 자금조성(정부80%, 농협20)하여 사업추진

- 계약재배는 6년 무이자 용자, 수매사업은 6년 3%저리용자

□ 연차적 사업을 확대하여 10년까지 전체수확의 40%담당

- ('04)500ha→('07)700→('10)1,000(수확면적 2,500ha)

<수삼 유통체계 개선추진>

□ 인삼소비의 50%를 차지하는 수삼은 표준규격이 있으나 실제 유통과정에서는 표시사항 없이 전근대적 형태로 유통

- 표준규격은 특·상·보통으로 구분하고 품목,산지,품종,등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전국에서 금산으로 집산되어 유통되는 수삼은 표시사항 없이 대부분이 금산산으로 생산지를 속여 판매

□ 수삼 규격화, 표준화, 세척수삼 보급·판매로 수

삼 유통의 선진화

- 생산지, 생산자, 등급 등을 표시하여 판매
- 안성, 김포, 부여인삼조합에서 시범적으로 세척수삼을 출시하여 소비자 호응 증대
- 세척수삼 판매실적 : ('04)3천만원→('05.8)8천만원

과제4. 인삼의 전업농육성

인삼전업농기준

외국삼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용 최소가 되는 면적 : 6ha

☞ 최소 4ha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전업농육성

□ '13년까지 전업농 2,000호를 육성하여 인삼재배 면적의 50%담당

- 인삼계열화사업 참여 농가를 우선적으로 전업농으로 육성
- 전업농에 대해서는 산·관·학에서 경영상태 등에 대해 컨설팅 지원

과제5. 외국삼 부정유통 근절

□ 외국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원산지 단속 철저

- 원산지 단속반에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참여 효율성 제고
- 원산지부정유통전화(1588-8112), 고발포상금제 운영
- 고발포상금 인상추진 : (현행) 최고 100만원→200만원

• 외국산식별 능력 제고

□ MMA물량 사후관리 철저

- MMA물량 수입업체 공개 및 분기별 1회이상 재고조사

□ 몰수된 밀수 인삼 공매대신 폐기되도록 관리 강화

<중국산 밀수 인삼 불법유통 근절>

□ 인삼류는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 또는 보따리상에의한 휴대반입(1인당 300g) 성행

- 관세 : 홍삼 754.3%, 백삼·수삼 222.8%, 인삼제품 18~30%
- 밀수적발물량 : ('01)9톤→('03)75→('04)66→('05.6월말) 53
 - 중국산 밀수삼은 유독성 농약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대부분 고려인삼으로 둔갑유통

□ 밀수하다 적발되어 몰수된 인삼류가 공매를 통해 시중 유통되는 등 사후관리체계 미흡

- 관세법 개정으로 '04.3.31일부터 몰수품이 농산물인 경우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부장관에게 이관 가능
 - 단,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검찰이 직접처분, 대부분 공매하여 시중유통

□ 인삼류는 고가이고 통상 밀수가 대형으로 이루어지고있어 대부분 물품원가가 2,000만원이상으로 개정관세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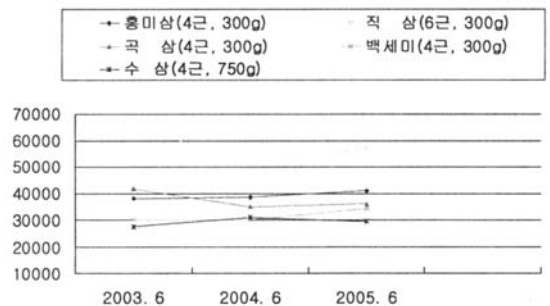
- 농림부는 검찰청, 관세청과 협조하여 모든 밀수 인삼류를 이관받아 폐기처분 추진

구분	2001	2003	2004	2005.6말
뿌리삼 수입량	56톤	17톤	65톤	14톤
뿌리삼 밀수적발량	9톤	75톤	66톤	53톤
농림부 이관 물량	0톤	0톤	0톤	18톤

★ 평택지검은 몰수 인삼류 20톤을 국내시장과 격리하기 위해 재수출 조건부 공매

(인삼 가격동향)

구분	2003.6	2004.6	2005.6
홍미삼(4근, 300g)	38,000원	38,500원	41,000원
직삼(6근, 300g)	64,500원	52,700원	56,800원
곡삼(4근, 300g)	41,700원	35,000원	36,000원
백세미(4근, 300g)	30,000원	30,000원	34,500원
수삼(4근, 750g)	27,300원	31,000원	29,500원



과제6. 인삼류 검사강화 및 미검사품 유통방지

-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강화
 - 시중 유통품을 매일 수거하여 잔류농약 확인검사 실시
 - 잔류농약기준 초과제품은 수거·폐기 조치
- 미검사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추진
 - 미검품 유통시 처벌강화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정('04.7.1시행)
 - 기준미달품: 회수, 폐기, 재검사, 압류를 명함
 - 월회 단속을 기본으로 시·도 교차단속 등 실시
 - 단속실적: '04년 28건 적발 고발 조치
- 미검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로 도입 추진
 - 법무부에 제도도입 협조요청('05.2)
 - 농관업, 지자체 공무원 등 413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요청계획



<인삼류 검사제도 개선 추진>

□ 현재 인삼류검사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체검사업체로 검사기관(업체)의 이원화

-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의 인삼류를 검사
-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인삼류를 검사하며 최근 자체검사업체 지정 증가 추세

- 지정현황 : (96)1개소 → (99)2 → (02)2 → (03)2 → (04)4 → (05)4

□ 최근 들어 자체검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경험부족 등으로 지정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체검사제도 미정착

- 농관원 확인검사 결과 '05년도에 5개업체가 지정 취소
- 편급위반 1개업체, 수분함량기준 초과 4개업체

□ 인삼류 검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검사원의 검사 능력향상 및 검사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하나 미흡

- 연구, 등급 결정이 대부분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검사원에 따라 판별기준이 상이할 가능성 존재

□ 향후 검사제도는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

- 검사원에 대한 정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검사원 자격요건 강화 등 검사능력 향상
- 검사기준 위반업체 및 검사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 검사제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 등
- '05년산 인삼류 제조 및 검사에 대비하여 검사원의 검사안목 통일 및 검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05.8.30~9.1)

과제7.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추진

□ 고품질, 내병성 신품종 개발·연구

- 유전공학 기술개발이 접목된 고사포닌, 내병성품종 조기육성
- 신품종개발 : (05)5품종 → (08)2 → (13)2 → (15)2
- 기개발된 천품, 연품 '15년까지 선도농가에 보급

□ 기계화율 제고 및 개발 농기계 보급방안

- 인삼재배 기계화율 제고 : (03)48%, (13)80%
- 공동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개별이용은 농업 종합자금으로 지원

- 홍삼내외부 품질판정기, 인삼방제기, 인삼수확기 등 개발 보급 추진

과제8. 연구개발 체계정립 및 기능강화

- 기능별로 국가 연구사업 체계 확립
- 농진청 작물과학원은 인삼재배, 품종육성 등 기초연구 수행
- 농진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신기능성물질 탐색 및 개발 등
- 한식연 인삼연구단은 인삼제품류 개발 등

□ 산·학·관·연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연구 과제 발굴 지원

- 단기연구과제 : 농안기금연구용역사업
- 중·장기 기획연구과제 : 농안기금연구용역사업

□ 국가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간의 협력연구 강화

과제9. 차별화된 시장별 수출전략 추진

- 수출목표(백만불) : (03)67→(05)100→(13)150
- 수출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으로 시장공략

- 홍콩, 대만은 뿌리삼류 시장기반유지 및 인삼제품 신규수요 창출
- 미국, 일본, 유럽은 식습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인삼제품 공략
- 동남아 신규시장에 대한 인삼제품 공략강화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한류열풍을 이용한 TV광고, 한·중드라마 협찬 등을 이용한 홍보
 - 홍콩 ATV, 상하이 동방TV 프로그램 협찬
- 대형인삼특판점 및 관측행사 홍보, 시내버스 빌



보드 광고, 전문지 광고 등

□ 수출대상국가 현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한 고려인삼 승열작용에 대한 오인식 해소 홍보효과 극대화

- 개최횟수 : (05)3회→(06)6→(10)10
- 승열작용 오인식으로 중장년층 동절기에 주로 소비되는 경향

□ 비교역장벽 해소를 위한 수입의약품 및 보건식품 등록 지원

- 중국내 고려홍삼 6년근 수입의약품 등록(04.5)을 계기로 태극삼, 백삼, 홍삼 4·5년근 추가 등록 추진
- 유럽내 고려인삼 수입의약품(건강식품) 등록 추진

□ 해외에서 고려인삼 위조방지를 위한 고려인삼 캐릭터 사용

- 캐릭터 해외상표 등록 : (03)19개국→(04)22
- 캐릭터사용 수출품에 수출물류비 지원 : (03)1,013백만원→(04)1,160

□ '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

-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비 및 건축비 일부 국고지원